



4월 고용 소폭 증가...경기 급속하강 신호탄

계절효과로 19만명 증가에 그쳐 도소매·숙박업 등 내수부진 뚜렷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표면적으로는 전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약간의 개선은 동절기 후에 고용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용이 크게 호전될 수밖에 없는 계절에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 미만에 머물렀다는 것은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경기조절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통계청 "고용추세 속단 어렵다" =

지난 4월의 취업자수는 2천371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9만1천명이 늘어나 전월의 증가폭인 18만4천명에 비해서는 약간 확대됐다. 취업자 증가인원은 2007년 11월 28만1천명, 12월 26만8천명, 올해 1월 23만5천명, 2월 21만명 등으로 계속 줄었다가 4월에 소폭의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고용률은 60.0%로 전월의 59.1%에 비해 올라갔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1.1%에서 62.0%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고용사정이 최악의 상황으

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속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인 2월까지는 고용사정이 안 좋았다가 3~4월에 개선되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4월의 고용지표가 약간 개선된 것은 계절적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1년 전인 작년 4월의 고용률 60.2%, 경제활동참가율 62.3%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 내수둔화가 고용시장 발목 = 내수

둔화가 고용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표적 내수업종인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9만6천명에서 올해 1월 -3만7천명, 2월 -2만9천명, 3월 -4만4천명, 4월 -4만8천명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내수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12월 -5천400명에서 올해 1월 -4천900명, 2월 -1만2천명, 3월 -3만5천명, 4월 -2만1천명 등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4월에 31만2천명 증가에 그쳤다. 이 업종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37만2천명이었으나 12월 36만4천명, 올해 1월 34만7천명, 2월 31만1천명, 3월 32만1천명으로 둔화됐다.

직업별로도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만7천명 줄어들어 지난달의 3만3천명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이 줄어든 것도 내수경기가 나빠지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사정이 안 좋으면 단기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되기 때문이다.

임시근로자는 지난해 4월에 512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만9천명이 줄었고 일용근로자는 4만명이 감소한 223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44만3천명이 증가한 889만4천명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째 20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경기하강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광주·전남 수입차 7,000대 넘었다

4월 말 현재 7,572대 등록

광주지역에서 운행되는 승용차 가운데 외제 승용차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4월말 현재 등록된 승용차 100대 중 1대에 달한다. 4대뿐인 서울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경기도(1.5대)와 부산(1.07대)과 비슷하고 대구(0.8대)·인천(0.77대)·대전(0.78대)을 넘어선다. 전남은 0.46대로 강원도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현재 광주·전남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05만1천633대를 기록한 가운데 외제 승용차는 7천572대로, 전체의 0.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자동차 등록대수 44만1천794대에 외제 승용차 4천594대(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7대에 비해 567대(14%)나 늘었다. 전남은 등록대수 60만9천839대 가운데 2천978대(0.46%)로, 지난해 2천564대보다 414대(16%) 증가했다.

배기량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 800cc미만 3대, 1천cc미만 2대, 1천500cc미만 25대, 2천cc미만 1천160대, 2천500cc미만 846대, 3천cc미만 1천159대, 3천500cc미만 611대, 4천cc미만 317대, 4천500cc미만 220대, 5천cc 미만 171대였고 5천cc 이상도 80대나 됐다.

전남은 같은 배기량에 각각 3대, 2대, 9대, 667대, 555대, 734대, 343대, 276대, 183대, 142대, 64대로 조사됐다.

각 시·도별 외제 승용차 등록대수는 서울 11만371대, 경기도 5만4천904대, 부산 1만67대, 대구 6천853대, 인천 6천258대, 광주 4천594대, 대전 4천35대, 충남 3천719대, 전북 3천343대, 전남 2천978대, 충북 2천675대, 강원 2천375대, 울산 1천938대 순이었다.

한편 4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천663만7천76대이며 이 가운데 외제 승용차는 24만5천653대였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증권거래소 사무실 압수수색

자산관리공사도 ... 공기업 비리 수사 들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총장검사)는 1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부산 및 서울 사무실을,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총장검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강남 사무실을 각각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12일 공기업에 대한 전면 수사를 선포한 직후인 13일 '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랜드백화점에 이어 이날 증권선물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잇따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강도높은 수사의 신호탄을 올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10분경부터 각각 5~6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증권선물거래소 부산 본사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총무부 등 부서와 서울 사무소의 이경환 이사장실 등 임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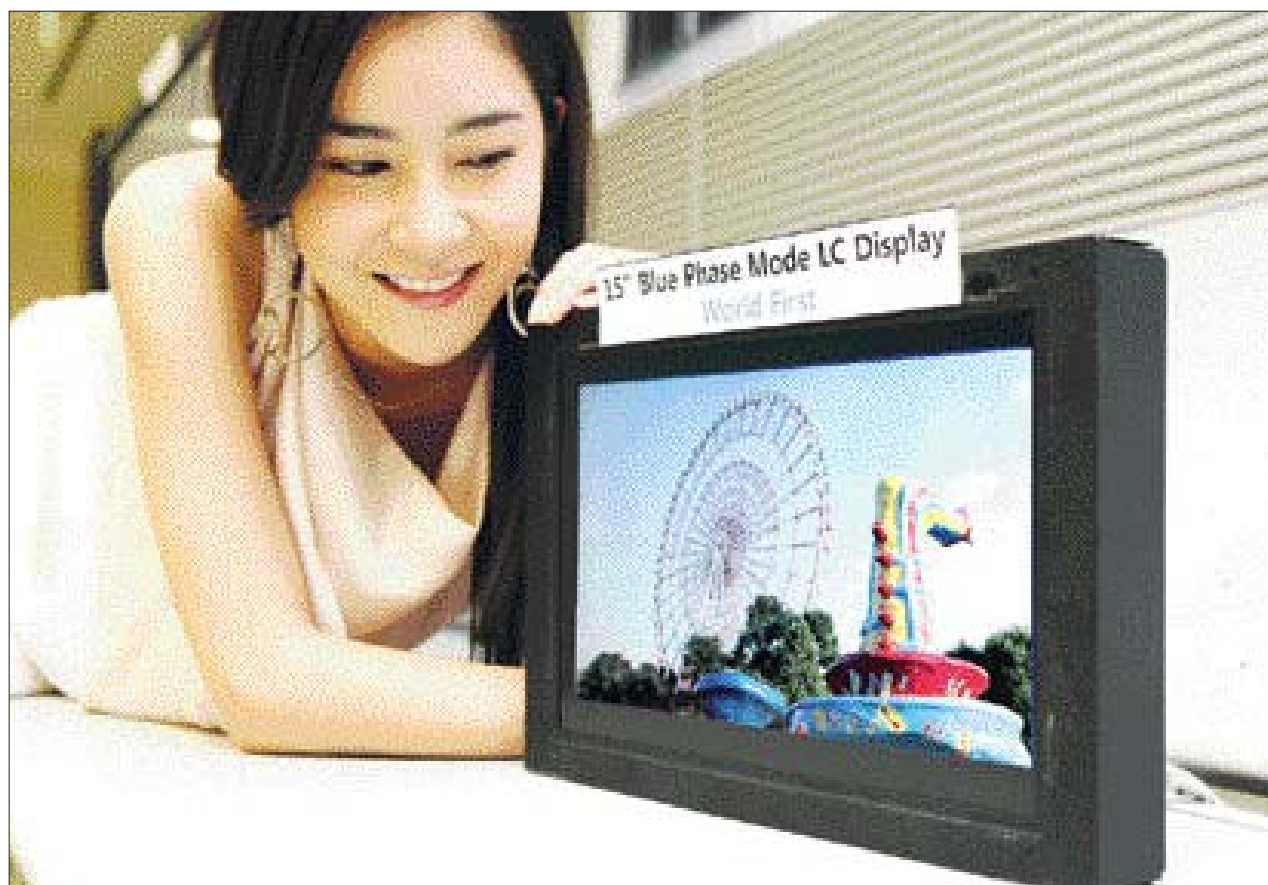
대비 등 업무 추진비 지출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예산 집행 및 자산 운용과 관련해 배임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수사관들을 서울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본관에 보내 임직원 사무실 및 서류 보관 장소 등을 수색해 관련 서류와 전자문서 파일, 개인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되팔아 채권을 변제받는 등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일부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삼성 '블루 페이지 방식 LCD' 삼성전자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학회(SID 2008)에서 '블루 페이지 방식(BLUE PHASE MODE)'을 적용한 15인치 LCD 패널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2011년부터 이 LCD 제품을 고수 동영상 구현이 필요한 TV용 패널 중심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연립뉴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퇴진

후임에 이윤우 대외협력 부회장

삼성전자는 14일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의 퇴진과 함께 후임에 이윤우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삼성전자는 윤종용 총괄 대표이사 경영체에서 '이윤우' 체제로 경영시스템을 가동하게 됐다. 윤 부회장은 1997년부터 12년째 삼성전자 총괄 대표이사로 일해왔다.

이번 인사에서 이기태 기술총괄 부회장은 이윤우 부회장이 맡아온 대외협력 담당으로 전보됐고, 황창규 반도체총괄 사장은 기술총괄 사장으로 옮기게 됐다.

권오현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은 반도체총괄 사장으로 이동했고, 임형규

종합기술원장 겸 신사업팀장은 신사업팀장 맡고 종합기술원장 겸 이이이 부회장은 1968년 그룹 공채로 삼성전관으로 입사한 이후 1977년부터 삼성전사에서 근무하면서 '삼성 반도체' 성공신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반도체총괄과 기술총괄을 맡아 삼성 경쟁력의 기반인 기술개발 전략 전반을 행여왔으나 대외협력 담당으로 이동하면서부터는 삼성내 역할이 꺾였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연립뉴스



주공-토공 통폐합 '급물살' 타나

'반대' 편 섰던 국토해양부 '찬성' 쪽 입장 급선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폐합에 반대해 왔던 국토해양부가 '찬성'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두 기관의 주무부처가 찬성함에 따라 공공기관 처리방안을 마련중인 기획재정부도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처리방식이 정부차원에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두 기관을 통합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기관을 먼저 구조조정한 뒤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통합하고 향후에 조지를 슬림

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두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주무부처가 찬성쪽으로 가다를 잡았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주무부처가 '찬성' 쪽으로 가다를 잡음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이 가능한 기관은 '한다'라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까지 찬성하는 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기능과 인력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의 중복 업무인 택지개발사업 관련 인력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민간에 택지개발사업권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더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택공사의 업무중 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해 중대형주택은 제외되고 소형만 남을 것으로 보여 분양주택 업무관련 인원을 줄여 줄 게 뻔하고 주택관리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거나 민간기관에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로의 이전 문제는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공사는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두 혁신도시간의 줄다리기가 격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연립뉴스

올 자동차 생산 600만대 돌파

어제 '자동차의 날' ... 수출 500억달러 전망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임재민 지식경제부 차관, 조남홍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는 자동차 생산 600만대(국내 420만대, 해외 180만대), 수출 500억 달러(완성차 394억 달러, 부품 148억 달러)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있는 해"라고 설명했다.

임재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축사에서 ▲친환경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시장선점 ▲IT산업과의 융합추진을 통한 자동차 고부가가치화 ▲완성차·부품 동반성장 등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자동차 기술개발과 융합, 완성차·부품업체 협력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홍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자동차업체의 각오를 밝히면서 "정부도 한국이 차세대 자동차시장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크게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립뉴스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비중

한국, 美·EU보다 2배 정도 높아

국제 곡물 가격 급등騰 충격효과 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유럽연합(EU)과 비교해 2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수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국제곡물 가격급등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파급되는 충격효과가 이들 국가에 비해 더 클 있음을 보여준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의식비 등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년 기준)은 한국이 28.0%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의 13.8%, 유로지역의 15.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들중에는 필리핀(50.0%), 인도(47.1%), 베트남(42.9%), 인도네시아(42.3%), 태국(38.5%), 말레이시아(33.3), 중국(33.2%)보다 낮지만 홍콩(26.9%), 대만(25.1%), 싱가포르(23.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면서 문화·오락 서비스 부문의 지출비중이 커지는 반면 식료품의 비중은 낮아지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료품 지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립뉴스

光銀 행장 추천위원 5명 선정

명단은 공개 안해

광주은행 행장추천위원 5명이 선정됐으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14일 광주은행 본점 16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최근 중도 사퇴한 정대석 행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행장추천위원으로 사외이사 2인, 예금부 협공사 이사 1인, 전문가 2인 등 총 5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행장 대행을 하고 있는 정 행장과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행장추천위원들은 행장 공모에 나선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뒤 선정된 적격자를 오는 6월경 예정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주총에서 행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광주은행 측은 "추천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개될 경우 행장 공모를 한 인사들의 모비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 여부는 우리금융그룹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당국이 경남은행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호남축판 | [영입팀/남품팀/생선팀]분야별 사원모집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05/16 | 062-419-8171 |
| 광일기공 | 일반사무직 사원채용 | 초대졸/경력무관 | 1000~1200 | 05/16 | 062-954-1725 |
| 광주인타임즈 | LED 연구소 관리자(패키징) | 대학졸/경력5년 | 회사내규 | 05/18 | 062-605-9778 |
| 이케이엔지니어링광주지사 | [사택제공/주5일]목표현대심호중공업 설계보조인원 채용 | 초대졸/경력무관 | 2200~2400 | 05/20 | 062-228-5437 |
| 케이이엔에스 | CNC, 설계, 조립 하실분 모집이다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5/20 | 062-955-1651 |
| 케이아이티 | 삼성전자 B2B 프린팅 호남총판 영업팀장 | 대졸/경력4년 | 3200~3400 | 05/21 | 062-652-2007 |
| 케이이엔 | 총무부 경리, 회계 담당사원 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5/21 | 062-944-8311 |
| 대명하이텍 | 케이블 설치사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2 | 062-953-6444 |
| 케이이엔케이 | 기획경영(수행비서 포함)부서 신입, 경력사원 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3 | 062-943-8115 |
| KJ일분야전문학원 | [광주 동구]일분야학원장사 모집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3 | 062-227-5005 |
| 에이HRN | [주5일/연2300만]SKT서부지사 114상담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2200~2400 | 05/23 | 062-529-2671 |
| 케이이엔디자인건설 | 전기기술자모집입니다 | 고졸/경력5년 | 2200~2400 | 05/24 | 062-611-8810 |
| 대산기업 | 광고 시각디자인사 모집 | 초대졸/경력1년 | 1600~1800 | 05/24 | 062-383-0011 |
| 유진방재 | 소방시설 공사 및 점검사원 채용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4 | 062-371-2119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